

러시아의 전력거래 부분자유화

2005년 5월부터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개시



러시아 연방 도매전력시장(FOREM)의 자유거래 구역(Sector)이 2005년 5월 1일부터 시베리아 지역에서 운용을 개시하였다(그림 참조). 이 구역은 자유가격에 의거하여 전력이 거래되는 곳으로, 러시아 유럽 및 우랄지역(이하, 「러시아 유럽지역」이라 함)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운용되어 왔다.

시베리아 지역으로의 운용범위 확대는 이미 정해진 방침이었으나 양 지역의 전력사업에는, 예를 들어 전원구성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 두 지역이 질적으로 똑같은 시장으로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FOREM 자유거래구역의 개설

FOREM은 1996년의 정부 결정에 의거하여 개설된 도매전력 거래를 위한 시장이라고 하지만 그 동안 규제가격으로 거래되어 왔다. 그것이 2003년의 정부 결정에 의하여 상대거래와 거래소거래(1일전 거래)로 이루어지는 자유거래구역이 도입된 것으로, FOREM의 부분자유화가 실현되어 FOREM 내에 규제구역과 자유거래구역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완전자유화까지의 이행조치라 할 수 있다. 또 자유거래구역의 운용지역은 우선은 러시아 유럽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에 이 구역의 운용을 시베리아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2003년 제정된 「이행기의 도매전력시장 규칙」에 대하

여 추가·수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유럽지역으로 한정된 시장범위에 시베리아 지역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이 규칙 전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베리아 지역에는 러시아 유럽지역의 자유거래구역 운용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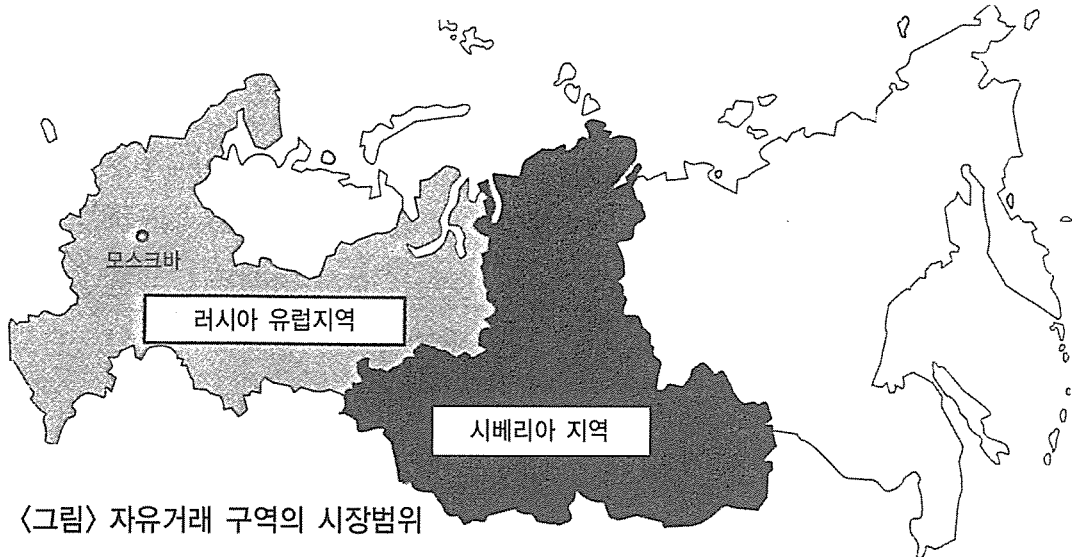
시베리아 지역 전력사업의 특징

당초에 자유거래구역은 러시아 전역에서 일제히 개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자유화에 수반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회적 리스크가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러시아 유러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그래도 이 구역의 시베리아 개설 계획이 2004년에 공표되었을 때 시베리아 지역의 수용가들로부터는, 러시아 유럽지역과 동일한 원칙이 주어지게 되면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요금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정은, 시베리아 지역의 전력사업의 특징(러시아 유럽지역과의 연계송전선의 송전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 시



〈그림〉 자유거래 구역의 시장범위

베리아 전력계통이 동쪽의 극동지역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 전국 평균이 20%에도 못미치는 수력발전의 비율이 시베리아에서는 반을 넘고 있다는 것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수력발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베리아 지역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15~20%나 값이 싼 발전코스트의 혜택을 입어 왔다.

시베리아 지역에 적용되는 자유시장 모델

이러한 시베리아의 특수사정이 고려되어 시베리아 지역의 자유거래구역은 새로운 시장범위로서 지역 고유의 시장모델로 운용하게 되었다.

전력가격이 시장참가자의 자유로운 가격신청에 기초하여 그 수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점은 양 지역에 공통되는 원칙이다. 한편, 시베리아 지역 고유의 원칙은 시장참가자가 이 구역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도로 나타나게 된다.

러시아 유럽지역에서는 공급측 참가자가 이 구역에서 1시간마다 판매할 수 있는 한도는 발전설비용량의 15%로 되어 있으나,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발전설비용량의 5%로 억제되어 있다. 수요측 참가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유럽지역에서는 계획 1

시간 수요의 30% 이하의 전력량을 자유거래구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15% 이하로 되었다.

자유거래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음

시베리아의 자유거래구역은 당초에 2005년 4월에 운용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 결정의 채택 지연으로 같은 해 5월로 늦어졌다. 또한 러시아 유럽지역의 운용부터는 1년 반 지연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연 덕분에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된 명분도 있었다. 2003년 11월의 운용개시에 임해서는 이 구역에서 구입되는 전력량은 FOREM의 경우 1% 정도에 불과했으나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돌연 2.5%~3.5%로 바뀌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이 구역의 전력가격은 310루블/MWh(1루블=0.035달러) 전후로 변화였으며, 규제구역에 비하여 20% 정도 값이 싸다. 참가자들로 부터도 개설 후의 단기간의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구역의 가격은 양호하며 공급시장도 일어나지 않고 시베리아가 시장에 능숙하게 융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발췌: 일본전기협회 발행 「전기협회보」